



# 작은도서관의 청년배제적 요인 에 대한연구실패 이야기

---

서초 구립내곡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김기달

---

계기		
	: 작은도서관이 있었다고?	7
	: 이런 곳이었어?	10
	: 작은 번뜩임	19
연구진행과정		
	: 협회와의 첫 만남	24
	: 서론을 적으면서	25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자!	35
	: 첫 번째 실패	37
	: 두 번째 실패	39
	: 세 번째 시도	39
	: 네 번째 실패	42
	: 연구, 못하겠습니다.	44
현실, 과제, 바람		
	: 청년 없는 작은도서관	45
	: 무엇이 문제인가?	49
	: 청년특화 작은도서관	51

## 계기

### 작은도서관이 있었다고?

2018년 1월 10일, 29살의 나이에 작은도서관이란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던 것이, 나름대로는 독서 문화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음에도 전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데다가, 심지어 그 역사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70년대라면 태어나기도 전이다. 나는 요즘 유행하는 ‘90년대생이 온다’, 라는 책을 볼 때마다 묘한 감상이 드는, 정확히 90년생인 사람이다. 어릴 적 선생님의 반강제로 새마을금고에 돈도 넣어봤고, 부실하기 그지없지만 있긴 했던 학교 도서관도 들락거렸으며, 언제나 높은 곳에만 위치해 있던 공공도서관들에 무거운 가방을 매고서 오르막길을 힘들게 걸어가기도 수없이 했다. 학창 시절에는 폴더폰이 나왔고, 대학생 시절에서야 스마트폰이 나왔던 세대다.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을 보자면 그냥 내가 책과 인연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굉장히 사적인, 나의 기억을 풀겠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듯 아버지께서는 자기 전 밤 늦게까지 스탠드를 켜두고 책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시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그 버릇을 싫어하셨다. 당연히 옆에 사람은 불빛과 책장 넘기는 소리 탓에 잠을 방해 받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책을 읽느라 아버지께서 잠이 부족해져 아침에 깨우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덕분인지 나는 어릴 적부터 책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조금 유별난 면도 있으셔서, 내가 중학생 때부터 자꾸 관심도 없는 한문 고전들, 특히 중국 역사 서들을 읽어주려고 하셨다. 이 한자는 이런 한자이고, 저 한자는 저러저러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옥을 캐내는 화씨네 이야기이고... 그 때마다 솔직하게, 도망가고 싶어서 몸을 비비 틀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는 고향인 경상북도 의성에서 자랐다. 마늘 밖에 없는, 시골 중의 시골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읍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안 받지 않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들불처럼 번지던 PC방 유행 바로 직전에 있었던 도서대여점 열풍에서 우리집이 바로 그 도서대여점을 열었다는 점이 큰 특이점이었다. 당시 좁디 좁은 의성 읍내에조차 도서대여점은 세 곳이나 있었다. 요즘의 만화방은 아늑한 공간의 제공과 음료 및 음식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장소 대여에 가까운 서비스이지만, 이 당시의 도서대여점은 대부분 책을 빌려가고 돌려주는, 책 위주의 유료 대출반납 서비스에 가까웠다. 거기다 그 시기 즈음하여 한국 장르문학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전부터 있었던 무협들과는 달리, PC통신의 보급과 함께 등장한 판타지, 로맨스 장르의 도서대여점의 확산과 함께 그 때의 풍경을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만화책에서 비록 흥미위주의 장르문학이지만 소설책으로 넘어갔고, 중학생 무렵에는 도서대여점을 벗어나 의성에 있던 유일한 공공도서관에 들락날락하게 되었다.

무려 경상북도립도서관이었던 의성 공공도서관은, 의성에서 하나밖에 없었다. 의성 종합운동장 건립과 함께 밑에 건설된 공공도서관은, 당시 읍내 기준으로 어마무시하게 컸다. 기껏해야 도서대여점 밖에 구경해보지 못한 내게 아버지를 따라 다녀온 공공도서관은 그야말로 꿈의 성채였다. 그 당시의 장서량이 얼마인지는 전혀 기억날 도리가 없지만, 2019년 현재 기준으로 9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아예 단독으로 건물이 있었고, 일반 도서관이 3층짜리 거대한 건물이었으며, 3층은 아예 전부가 독서실이었다. 이 당시의 기억 덕분에 내게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이런 대규모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도서대여점과 공공도서관으로 접철된 시기가 변화를 맞이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말엽이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사업 부진 문제로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의 결정은 현명했다고 보이는 것이, 2019년 지금 지방 소멸 1순위로 꼽히는 곳이 다름 아닌 그 의성이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는 도서대여점은 물론이고 그 이후 흥행한 PC방 사업 또한 위협했다. 어쨌건 부산으로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학교 도서관의 수준이었다.

운이었는지 부산으로 전학 온 중학교는 돈이 많았다. 어차피 성적순이 아니라 배치로 학교를 가는 것인이라 학교의 수준은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일단 학교 자체가 아파트 단지 안에 지어진 곳인이라 자금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세한 상황이야 전혀 모를 일이지만 일단 학교가 돈이 많다는 것은 건물과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성에서의 학교도서

관은 그냥 명목상으로 지어진 곳으로, 정치인들의 선심쓰듯 뿌리는 책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졸업생들이 기증한 책들, 혹은 지역주민들이 버리기 아까워 기증하는 기증도서들로 채워진 쓰레기장이었다.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을뿐더러 도서 선별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장서량이 지나치게 적었다. 하지만 새로 전학 온 부산의 중학교는 일단 학교 도서관 공간 자체가 컸고, 장서량도 나름대로 갖추었으며, 무엇보다 책 신청이 가능했다.

부산에 와서 변한 것은 학교 도서관뿐 아니었다. 지금도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 마지않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과의 첫 만남도 그 즈음이었다. 당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은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팔려고 장보는 용도의 카트에 잔뜩 실어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돌아다녔다. 당연히 팔고 난 돈은 내 개인용 돈이 되었다. 약간은 간식비로 빠져나갔지만, 주로 그 자리에서 사고 싶은 책들을 샀다. 헌책방 주인들마다의 취향도 각각 달랐고, 그래서 가격조차 달랐다. 같은 책이라도 어떤 곳은 비싸게, 어떤 곳은 싸게 사거나 팔았기 때문에 수많은 헌책방들을 들락날락하다보니 자연스레 안면도 트고 단골이 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 맡은 맨질맨질한 책 냄새와 달리, 헌책방의 냄새는 쿵쿵하고 누렇게 변색되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책 냄새가 났었다.

대형서점도 이 당시에 경험할 수 있었다. 부산 3대 서점이었던 교보문고, 영광도서, 동보서적 중 동보서적의 단골이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는, 워낙 서면의 길이 복잡한데다 나 자신도 심각한 길치인지라 친구와 같이 동보서적에 가려다 서면을 2시간 헤매었던 일이다. 처음부터 같이 만나서 가면 간단한 일이었건만 서면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찾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만난 게 용하다. 학생이 돈이 많았을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히 구경삼아라도 자주 갔었다. 그러다 한 권 정도 살 돈이 모이면 신나서 갔었고, 하지만 역시 안타깝게도 동보서적은 2010년에 갑작스레 문을 닫아버렸고, 고작 서점 하나 망한 것인데도 꽤 섭섭해했었다.

말 그대로 어찌다 보니, 분명히 아버지의 탓이라 생각하지만, 주변에 책이 가득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안방, 도서대여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형서점 등으로 이어진 줄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전환기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대학 도서관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역시 지금도 사랑해마지 않는 사회학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의 대학도서관은 아예 새롭게 건립된 건물이었는데, 정확히 내가 입학하는 해에



건설이 완공되어 개방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 건물이었다. 한 쪽 면은 아예 유리로 된 창을 벽으로 삼는 대담한 설계와 엘리베이터도 많아 밀리지 않았으며, 무려 3개 층이 도서열람실이었고 2개 층이 독서실이었다. 들어갈 때는 학생증을 뺏히고 찍으면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학생들 쉬라고 폭신폭신했던 것들을 잔뜩 넣어둔 장소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학도서관이 좋았던 것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공서적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으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서들이 보존서고에서 책 찾느라 나를 꽤 원망했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이번에는 대학원을 가고자 서울로 올라오려 했다. 그러나 서울이 어디인가. 물가가 높고 땅값도 너무나 비싼 곳이었다. 결국 바로 서울로 올 돈이 없어 안산의 어느 IT 연구소에 취직해서 1년 정도 돈을 벌고 나서야, 드디어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 IT 쪽이 대부분 그렇지만 워낙 야근이 많을뿐더러, 전공조차 아닌 것이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무엇보다 대학원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정시 퇴근하는 일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다 이것 또한 정말 어찌다보니, 공공근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찌다보니 공공근로 중에서도 작은도서관 사서가 되었다.

그렇다. 2018년 1월 10일, 29살의 나이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접촉했던 독서 공간에서 새삼스럽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곳이 있었다는, 그 당혹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 이런 곳이었어?

어찌되었건, 나는 00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가게 되었다. 애당초 서울에 온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지리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지라 00동이란 곳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곳은 자치센터를 개조한 곳이었었는데, 위로는 3층까지 있었고 옆으로는 2개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내가 간 작은도서관은 그 중 오른쪽이었는데, 왼쪽 건물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었다.

처음 작은도서관에 들어섰을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일단 첫 출근으로 좀 일찍 동사무소로 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따로 교육도 없이 서류만 작성한 뒤, 작은도서관

으로 가게 되었다. 관장님께 미리 전화드렸으나 반지를 얹으신지라 잠겨진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30분은 지났을까, 전임자가 와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때 몇 가지를 파악했다. 첫째로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두번째로는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서 이미 퇴직한 뉴딜일자리 분을 데려와야할 정도로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세번째는, 이 건물에서 상주인원은 나 혼자라는 점이었다.

이건 꽤 신선한 체험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내가 있었던 연구소나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게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첫 인상은, '주먹구구식' 이었다.

그렇게 일하게 된 00동에서의 작은도서관은 일적으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용객 수가 한 달에 거의 300여명 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단골 이용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규 가입은 한 달에 1~2건 정도 밖에 없었다. 문화 프로그램도 한 두개 정도였다. 공간 자체도 작은 편은 아니어서 1층과 2층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었다. 장서량은 가장 많을 때 기준으로 13,000여 권 정도였다. 그래도 이용객 수에 비하면 장서량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1층과 2층에 걸쳐서 사방에 책장이 붙어있었을 정도였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00동이란 동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00동의 가장 큰 특징은 철공소 단지라는 점이다. 서울에 사는 지인들에게 00동을 물어볼 때에, 대부분은 철공소를 이야기하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만이 방직업을 이야기하셨다. 과거 일제 시대에는 00동에 큰 방직공장이 있어서 미상기를 돌리는 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살았고, 그리고 한참 경제성장기 시절에 철공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단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철공소 단지라서 가지는 특징들은 꽤 많다. 특히나 00동의 작은도서관에 일하게 되면서 아예 집도 00동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일단 철가루가 몹시 많다. 작은도서관에서도 집에서조차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세 철가루 먼지가 쌓였다. 물티슈로 훑어보면 일반적인 회색 먼지가 아니라, 시커멓게 묻어나오는데, 이것이 철먼지라고 했다. 철가루 뿐 아니라 풍경 또한 나름의 특색이 있다. 큰 도로를 따라 여기저기 건물 사이로 나있는 매우 좁은 골목들과 그 골목들 사이사이에 들어서있는 아주 낡은 철공소들의 모습은 꽤 인상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여 밤이 되면 아예 인적이 없어진다. 변화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다 철공소들도 야밤에는 소음 때문인지 야근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진다. 간혹 술 마시는 분들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하지만 00동에 철공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술 쪽에 종사하는 지인들이 이야기해주기로, 홍대에서 쫓겨난 이들이 00동으로 많이 모였다고 한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이 즈음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던 개념으로, 밀집한 변화가가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 탓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면서 현지인들은 사라지고 외부의 거대자본들, 가령 화장품 가게같은 곳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홍대거리의 예술가들의 성지로 일컬어져왔다. 서울에 살지 않던 나조차 홍대 인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정도다. (물론 그 이야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포함이다.) 그런데 그런 홍대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모든 예술가들이 빠져나간 것도, 모든 빠져나간 예술가들이 00동에 온 것도 아니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00동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모여서 00 예술촌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00 예술촌은 최근의 트렌드인 뉴트로와 차고 감성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느낌이다. 뉴트로란 뉴(New)와 레트로(Retro)의 합성어로, 새로움 + 복고의 뜻이다. 단순히 복고풍을 넘어서 복고에다 현대적인 해석을 곁들이는 어떤 트렌드를 이야기한다. 주관적으로는, 옛날 것을 더 세련되게 재배치한다는 정도의 느낌이었다. 차고 감성이란 미국의 IT기업들의 성지인 실리콘 벨리에서 나왔다. 자동차 창고에서 이것저것 만들던 시기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형그리 정신에 가까운데, 이제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인테리어적, 미적 개념이 되었다. 00 예술촌을 보면 옛날의 정취와 차고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다. 그건 주요 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00동 특유의 좁고 많은 골목들 사이에도 수많은 예술촌 가게들이 있다. 사진점, 사진 전시관, 목공점, 공유 작업장, 시인이 운영하는 개인서점, 책을 들여놓은 카페들 등등이 그러하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철공소와 예술촌 사이의 거리가 멀지도 않을 뿐 더러 상당 부분이 겹친다는 것이다. 예술촌에서 세운 가게들 사이로 철공소가 보이는 곳도 있다. 이렇게 가까이에 서로 위치해 있다보니 당연히 예술가들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들 또한 참신한 것들이 많다. 폐

철공소를 거의 보존한채 개조하여 카페로 만든 곳도 있으며, 낡은 철공소들의 간판을 예술가들이 만들어주기도 하였고, 황량하던 벽면에다 온갖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내 눈을 끌었던 것은 철공소들 문 앞에마다 있던 하나의 문구였다.

## '일하는데 사진 찍지 마세요'

00 예술촌이 어떤 관광지화되면서 일어난 폐해였다. 실제로 일하는 철공소 노동자들조차도 하나의 '상품'이라 생각하고선 무례하게 사진을 들이대는 경우 또한 많았으리라. 그런 어떤 기묘하면 서도 아슬아슬한 철공소와 예술촌의 동거는 몹시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00동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년을 일했으니 일들이야 수없이 많지 않겠나. 다만 작은도서관에서 느낀 어떤 불쾌감, 문제점들을 몇가지 에피소드들로 간추려 여기에 적는다.

기억에 남는 첫 번째는, 운영시간에 대한 것이다. 지금이야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나 이곳은 운영시간이 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점심시간 12시~1시에는 아예 작은도서관 문을 닫아야했다. 문제는 오전 내내 어떤 이용자도 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업무는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일이 없는게 편하니까. 그 오전시간 동안 간단하게 청소에만 신경 쓰고(상주인원이 나 밖에 없다는 건, 청소부도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그냥 쉬면 된다. 작은도서관에서 맡은 업무 중 하나는 매달 통계자료를 상급기관에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걸 위해 매일매일 이용자들을 기록하다보면 그런 점들이 더욱 여실히 보였다.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은 딱 3가지 계층 뿐이었다. 유아 및 아동, 주부, 어르신.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근처 철공소 노동자가 오기도 했지만 1년을 하면서 단 두 명만을 봤다. 가장 심각한 것은, 1년을 일했음에도 단 한 명도 청년 이용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일단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면 대체 어떤 직장인이, 어떤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시간 외에도 위치적인 문제나 홍보부족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이 시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의미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청년이 아예 없는가? 라고 하기에는 00 예술촌이 바로 옆에 있었다. 위치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열기만 해

도 최소한 청년들 몇몇은 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인과 작은도서관의 연계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 시너지는 상상만해도 멋졌다.

거기다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용자 쪽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었는데, 철공소가 위주로 있던 곳이니만큼 밤이 되면 인적이 지나치게 없다. 가로등도 적어서 밤이면 캄캄하기 때문에 근방에 사시는 이용자 분께서는 꽤 무서웠던 듯하다. 차라리 오후에 운영하여 일종의 세이프티-존, 즉 치안구역으로 만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 어떠냐고 하셨다. 아주 좋은 생각 같았고, 앞서의 생각도 있었기에 결심하기는 쉬웠다.

한 몇 달을 버리고 있다가, 운영시간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대단히 익숙하지만 실망스러운 것으로, 10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으니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공근로라 그런건지, 근로계약 때문에 그런건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황망하였지만, 분명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국 그곳에서 나갈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오전 시간에 문을 열고, 직장인들이 퇴근조차 하기 전인 5시에 문을 닫았다는 점이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였다. 당시 작은도서관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 있던지라 리모델링 계획이 꽤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2017년 말에 이미 설계 회의까지 했었다고 한다. 즉, 내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었고 그저 근무 중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만 들은 상태였다. 리모델링은 여름 즈음에 이루어졌다. 완전히 리모델링이라, 모든 책들을 박스로 만들어 보관해야 했다. 당연히 그 순서가 중요했기에 책장에 각 번호를 붙이고, 그대로 박스에 넣었다. 커다란 트럭에 모든 것을 다 옮기고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나는 출지에 동사무소에서 무인발급기 안내인이 되어야 했다.

거의 석 달은 되었을까? 여름이 지나갈 즈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다시 작은도서관에 돌아오게 되었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뉴딜일자리 분도 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새로 책들을 책장에 놓아야 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책장마다 따로 박스를 두었기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 여겼다. 그저 순서대로 박스들을 정렬하고, 한 박스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큰 오산이었다. 전혀 들은 바 없이, 책장이 너무나 크게 줄어들었다.

1층 절반 정도에 아이들 용으로 장판이 깔린 마루식 바닥이 생겼다면, 2층이 카페식으로 꾸며지고 크고 장사해도 될 정도로 잘 정돈된 부엌이 생겼지만, 화장실은 좁아지고 책장은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그 책장들조차 전부 다 달랐다. 1층 앞쪽에 있는 책장과 옆쪽에 있는 책장의 규격이 달랐고, 2층은 또 규격이 달랐다. 기존의 것보다 작은 규격이었다. 덕분에 아, 일이 어려워졌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일단은 잔뜩 쌓여진 박스들을 3층 복도로 날라야 했다. 완공 기념으로 구청장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란다. 개관 기념 행사라 모여서 끈 자르고 간다는데, 그 안에 일단은 13,000여권이 들어간 박스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두 사람이 그걸 날랐다. 그래서 어찌어찌 기념행사를 마치고나니 이제 3층에서 박스를 하나하나 들고 내려와서, 규격에 맞지 않으니 대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서 일단은 꽂아두고서, 다시 박스를 들고내려와야 했다. 번호들을 매겨두었지만 3층에 잔뜩 쌓아올리고 난 뒤인지라 번호대로 내려올 수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저 꽂고 나서 정리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작컨대 상당한 수의 책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다.

박스를 거의 10개 가량 꺼낸 초반부에 남은 박스의 수와 채워진 책장의 칸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추산해냈다. 그 결과 아주 대충, 대략적으로 1/4은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책들을 그냥 버릴 수도 없었다. 당시 작은도서관에서는 KOLAS 프로그램이 아닌, KLAS 라고 하는 장서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그 책들이 전부 등록되어있었고 그걸 통해서 총 장서량 통계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니 결국 버리는 책들은 하나하나 수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시켜야 했다. 단순히 삭제시킨다고 끝이 아니다. 따로 모아서 박스에 담아 보관해야 했으며, 그걸 폐기할 때도 그냥 밖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을 부르고 밖에 쌓아 두어야 하며, 쌓아두는 과정을 사진으로 5 ~ 6장 찍어서 동사무소에 보내줘야 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에 어디론가 기증을 하거나 나눔을 하는가 싶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냥 폐지수거인을 불러 트럭이나 리어카에 실어버렸다. 2018년 하반기를 거의 이 업무로 보냈는데, 마무리하고서 보니 버린 책들만 5,000여권이 되었다. 과정의 문제나 5,000 여 권이 아까운 문제도 분명 마음에 걸렸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인 나와 뉴딜 분조차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책장의 규격이 어떤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책장이 놓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전달 받은 게 없던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왔다.



그중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기억에 남는 세 번째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2층을 카페로 개조했었다. 그 2층 카페에서 문제가 터졌다. 부엌은 가게를 내도 될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놓아 거의 방의 1/3을 차지할 정도였지만, 정작 도서관 책장의 일부가 그곳에 함께 있는지라 화기를 놓아 둘 수 없었다. 즉, 가스렌지조차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큰 부엌은 하반기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다. 기껏해야 모임 같은 게 있을 때에 과일 접시나 커피 잔을 씻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본격적인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무리였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책에 냄새가 났 위험도 높았다. 무엇보다 부엌용 환풍기가 아예 없었다. 뭘 위해 만든 것인지 모를, 크고 멋지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던 부엌이었다.

단순히 조리를 못하는데 큰 부엌이 있던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조리를 안하면 되니까. 문제는 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였다. 안그래도 5,000 여권이나 버려야 했던 지라 아예 그곳의 책장을 다 빼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설령 가능하다해도 원래 작은 도서관의 구역이었던지라 골치 아픈 일이었다. 그렇다, 그 공간은 무려 5개 단체가 서로 엮여있는 공간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진 뿐 아니라 마을 자치 계열의 민간 단체, 동사무소까지 엮여있는 그 공간은, 그곳을 누가 사용하는지 문제로 엄청난 다툼을 불러왔다. 더 심각한 것은, 큰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 구획이 나누어져 아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가령 1층 오른쪽은 작은도서관, 왼쪽은 어린이집이었다.) 이 2층의 오른쪽인 작은도서관 북카페와 왼쪽의 마을동아리 공간을 유리문으로 이어놓았다는 점이다.

왜 문이 달렸는데 문제가 되는가하면, 작은도서관 사서가 있는 컴퓨터와 의자가 1층에 있기 때문이었다. 사서는 나 한 명이고, 뉴딜에서 오신 분은 어쨌거나 임시로 리모델링 후 쌓인 책들 문제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셨다. 이는 2층에 상주인원이 아예 없다는 말이고, 왼쪽 건물인 어린이집 쪽으로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가도 1층에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바로 터졌다. 커피를 마신 컵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있었던 것이다. 그걸 누가 마셨는지, 왜 그냥 두고 갔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가장 먼저 올렸던 안건은 CCTV 설치에 대한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1층 내에서 감시가 불가능하다면 CCTV를 달아서 계속 모니터링하면 되는 일이다. 문제는 그게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였는지, 아니면 관할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CCTV는 설치 불가능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다른 상주인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어하던 단체들이, 상주인원을 뒤흔다니 자기들은 절대 못

한다고 나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돈도 못 받고 2층에서 하루종일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게 설령 봉사단체이고,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단체라고 할지 언정 말이다.

결국 2층은 왼쪽 건물과 연결된 유리문을 항상 잠그게 되었고, 작은도서관 쪽 문을 이용해달라는 문구를 계속 붙여두게 되었다. 그리고 북카페는 공간 대여의 방식으로 굳어졌다.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장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관이 가능한 시간대는? 당연히 업무시간대로 고정되었다. 관리자가 한 명은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오전 10시 ~ 오후 5시에 대관을 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한 번은 요리 교실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관장님이 허락해주었더니, 주방기기 회사에서 회사원이 딱 하니 와서 주방기기 선전 겸 요리 시현을 아주머니들에게 해주는 것이었다. 당연히 문제 시 되어서 관장님이 화를 내셨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환풍기도 없었기 때문에 창문을 죄다 열어놔도 냄새가 하루 종일 빠지지 않았다. 나중에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설계 단계에서 마을자치 계열 민간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북카페가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원래 용도는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설계단계에서 환풍구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넘어가더라도, 상주인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은 끝나버렸으니, 이 후로도 작은도서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멋대로 회의를 열고자 시도한 적도 있었고(어떻게 열었는지 왼쪽 어린이집 쪽으로 올라와 문을 열어서 앉아 있었다. 정말로, 놀랐다.), 작은도서관 외의 건물 청소는 동사무소의 관할이었는데 2층 북카페를 작은도서관으로 할지, 다른 공간으로 할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심지어 쓰레기통을 두냐 두지 않느냐 문제로도 싸워댔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5개나 되는 단체들이 공간을 공유한다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본다. 바로 현직 사서들의 의견이 리모델링 공사에 눈썹만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는 사서라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그 경험들로 인하여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만 당연히 2017년도의 사서도 계획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공근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걸 인식을 넘어서 일 자체를 이상하게 처리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이후로도 기억나는 두 가지가 남았다. 세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 여름밤의 영화관 행사를 시도해보려 했던 것이었다. 이 일의 계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2018년의 여름이 워낙 더웠다. 동사무소에서 무더위쉼터 스티커를 가져다주며 붙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층 북카페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부엌도 멋있었지만, 무엇보다 빔 프로젝트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거기다 북카페에서 유리문 하나만 넘어가면 왼쪽 건물의 마을동아리 공간이 있었는데, 요가나 댄스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크고 넓었다. 북카페의 빔 프로젝트를 옮기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빔 프로젝트를 빌려다 저 넓은 공간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주민들과 영화를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지나간 것은 그다지 무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곱씹을수록 좋은 생각이었고, 작은도서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호응이 좋았던 지라, 바로 착수에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까? 그러나 그 고민은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관장님께서 반대하셨다. 그걸 위해서는 엄청 많은 절차와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운영비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운영비! 작은도서관에 떨어지는 운영비는 고작해야 1달에 도서구입비로 30만원, 문구비로 10만원 정도였다. 그나마 우리 도서관은 사정이 나았다. 새로 총무를 맡으신 분이 꼼꼼하셨고, 그 덕에 낡은 프린터라도 고칠 수 있었으니까. 어찌 건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우리 작은도서관조차 운영비가 많이 들어 힘들다고하니, 일개 사서 입장에서는 바로 생각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그 해 여름은 아무런 행사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억에 남은 일화다. 2층 북카페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공간이었다. 부엌도 멋지게 꾸며져있고, 빔프로젝트도 있으며, 책장들에 책들도 꽂혀있다. 이 공간을 그저 대관용으로만 버려두는게 과연 맞는 일일까? 그래서 고심 끝에 2018년 9월 즈음 구체적으로 일을 구상했다. 마침 동사무소에서 동아리 개설을 모집하기도 했고, 공간도 작은도서관 2층의 북카페로 정해져있었다. 이런저런 고민과 많은 도움 끝에 독서 및 영화 모임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 연령층은 당연히 청년. 전부터 예술촌과의 연계를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이 독서모임이 그런 연계의 단초가 되었으면 했다. 시간대 또한 고민했다. 여러 유사한 다른 모임들을 토대로 살펴봐, 토요일 오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동아리 모임이 동사무소에 등록되었고, 2주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가지기로 했으며, 대관 문제도 미리 허락받고 서류도 작성해두었다. 홍보 또한 소모임 어플리케이션과 모임의 메카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청년들만 거의 6명 이상이 모였고, 다들 적극적이었다. 책과 영화를 번갈아가며 보는 모임이었는데 호응도 좋았다.

문제는 이런 열기가 채 한 달이 안되어 수그러들어 버렸다.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책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영화가 별로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모임장으로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참여자들이 건내온 말들에서, 그런 문제들보다 더 큰,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위치의 문제였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라는 공통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너무 좁고, 환기가 잘 안되고, 커튼이 없어서 빔 프로젝트가 잘 안 보이는 등등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외관이 좋지 않다는 신선한 의견도 들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둔감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그걸 되새기는 순간, 나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화적 열의가 부족해서 작은도서관에 오지 않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이 구체화되었다.

운영시간 문제, 리모델링 공사, 한여름 밤의 영화관 요청, 독서 모임 실패, 이렇게 네 가지의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불만 정도에 그쳤다. 솔직히 개인이 바뀌보았자 무엇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문헌정보학과도 아닐뿐더러, 공공근로는 잠시 서울에서 대학원 갈 시간을 벌고자 하는 잡일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이다.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 바꿔볼 영역도 아니었고, 그럴 의욕도 없었으며, 그럴 여유도 되지 않았다.

## 작은 번뜩임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것이 이상한 법이다. 공공근로를 끝내고서 다음 일자리를 찾는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아 근근히 먹고 살며 일을 알아보던 중 뉴딜 일자리를 발견했다. 생각해보면, 공공근로 할 때에도 하반기는 뉴딜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뉴딜 일자리에 신청서를 넣었다. 총 5군데를 지원할 수 있기에 여러 분야를 넣었다. 특히나 나는 사학과를 복수전공하기도 했고, 문화사업 쪽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큐레이터나 문화사업 쪽으로 치중해서 넣었다. 그리고 죄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순회 사서라는 곳도 넣었다. 아마 00동에 있을 적 뉴딜 분이 순회 사서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열심히 준비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된 곳은 순회 사서였다. 그것도 위치도 이번에는 서초구로 가게 되었다.

깊이 고민했다. 물론 재미도 있었고,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여기에는 간추려 적어야했기에 그런 일들을 모두 빼버렸다.) 문헌정보학과도 아니고, 적잖이 실망한 부분도 많았고, 괜히 여러 단체 사



이에 끼여 고생했던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했다. 하지만 역시 서울살이를 지속하려면 어쨌거나 돈이 필요했고, 순회 사서란 일을 1년 간 한 번 해보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마침내 2019년 3월 3일, 00구청에서 하는 사서 교육을 시작으로 순회 사서의 일이 시작되었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순회 사서란 일은 작은도서관 사서와는 또 많이 달랐다. 일단은 벼락치기이긴 할지언정 기초적인 사서 교육을 하기는 했고, 출근과 관련된 서류도 작성해야 할 것이 많았다. 시간도 6시간 근무에서 8시간 근무로 늘었고, 작은도서관만 다니지도 않았다. 작은도서관은 거의 출장 식으로 오전이나 오후에 따로 가는 것이었으며, 그 외의 시간은 큰 공립 도서관에서 일해야 했다. 확실한 것은, 큰 공립 도서관은 청년들의 이용이 활발하다는 것이었다. 주로 공부하는 목적 이기는 했으나, 그 중에서는 간혹 책을 읽고자 하는 청년들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문래동보다 처참했다.

내가 맡게 된 작은도서관은 총 4군데였다. 그 중 3곳이 아파트 단지 도서관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교회 도서관이었다. 어쩌다보니 단 2년 만에 작은도서관의 많은 형태 중 대표적인 3곳을 죄다 겪게 생겼다. 그 덕분에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문제가 단순히 개별적인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라란 점도 알 수 있었으니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작은도서관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각각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순회 사서는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 번 작은도서관에 가고, 그나마도 반나절만 있다가 가는 것인지만 운영에 크게 관여하지 못했다. 그래서인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인상의 깊이도 00동의 작은도서관에 비하면 아주 얽었다. 그렇기에 에피소드 방식이 아니라, 각 형태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적는 방식으로 서술하겠다.

일단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은 각기 공간이 특색있게 달랐다. 어떤 곳은 노인정을 개조하였고, 어떤 곳은 어린이집을 개조하였으며 어떤 곳은 그냥 지을 때부터 있었다. 노인정을 개조한 작은도서관은 지하에 있었고, 어린이집을 개조한 곳과 그냥 있었던 곳은 2층 건물에 있었다. 건물 공간도 개별적으로 특색이 크게 달랐다. 노인정을 개조한 곳이 가장 크고 넓었으며, 방이 여러 개가 있었다. 심지어 방음도 잘 되어있어서, 내가 일하는 오전에는 우쿠렐레 동아리가 음악 연습까지 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어린이집을 개조한 곳은 작고 허름한데 비해, 어린이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다 테이블 게임(미니탁구나 테이블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아파트 단지 도서관은 전부 관리사무소와의 연계가 강했다. 00동의 작은도서관은 동사무소와의 연계가 강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문 열쇠 또한 운영진이 가지고 있는 것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 조명 같은 시설물 또한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수리하고 있었다. 프로그램도 다른 것을 썼다. 00동의 작은도서관에서는 KLAS 라는 프로그램을 썼고, 큰 공공도서관에서는 KLAS를 썼으며, 아파트 단지 도서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책갈피' 라는 프로그램을 썼다. 그리고 00동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진이 있으되 사서 인력은 공공근로나 뉴딜에 100%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파트 단지 도서관은 단지 내 주민들의 봉사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탓에 연속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 근무기록지 같은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던 점이 인상 깊게 남았다. 그 외에도 주요 이용계층이 00동의 작은도서관보다 훨씬 유아동과 어머니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었다. 00동의 작은도서관에서도 물론 유아동과 어머니들이 많긴 했지만, 어르신들과 철공소 노동자 분들도 이용하셨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은 유달리 유아동과 어머니들만 오셨다.

바로 그 점이 눈에 띄었다. 청년은 당연하고, 어르신들과 노동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단지 내에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단지 내에 일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부 분들이라도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단지 내 노인정에서 주로 계셨고, 직원 분들이나 청소부 분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으셨다. 단지 내에 정말 유아동과 어머니들 밖에 살지 않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향이 심각했다. 00동의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어르신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도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은 모두가 예외없이 유아동이나 그 어머니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으로는, 소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00동의 작은도서관도 물론 완전히 엄숙한 공공도서관보다는 소음에 관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억제시키려는 어머니들의 노력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도서관에서는, 주의를 주기 전에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그 어머니들이 주로 수다를 떨곤 했다. 일종의 사랑방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는 오직 유아동과 어머니들만 있었다.

내게는 몹시 특이하게 느껴지지만, 당사자들에게겐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도 있었다. 앞서 00동 작

은도서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시간의 문제였다. 아파트 단지 도서관도 마치 미리 정해놓은양 10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있었다. 봉사자 위주로 이루어져있고, 아직까진 집안일을 주로 어머니들이 하다보니 그런 것일까 하고 넘겼지만, 그러다보니 이용계층이 더 한정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었었다. 하다못해 가족들이 오순도순 단지 도서관에 들르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보였지만, 5시에 문을 잠그니 별 방법이 없겠다 싶었다.

교회 도서관은 이제까지 만나본 작은도서관 중에서 가장 독특했다. 이제 막 건립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인지라 기증 받은 책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장비 작업을 하는 것부터 해야했다. 프로그램도 완전히 다른 것을 쓰는 데다 (아직까지도 이름을 모른다), 아무래도 교회 건물이다보니 목사님이나 목사 사모님이 항상 계셔서 상주인원 걱정은 전혀 없어보였다. 주 이용자층도 유아동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신자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도 있으셨다.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도 안에 있어서, 콘서트 같은 문화행사도 많이 할 수 있어 보였다. 다만, 아무래도 막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라 해야할 일은 많았지만 이용자 분들은 교회 관계자분들 외에는 본 적 없었다.

이렇게 큰 공공도서관 한 곳과 작은도서관 네 곳을 전전하며 일하던 중,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서 교육을 듣다가 우연히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보니, ‘2019 작은도서관 정책연구지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시도하기도 전에 많이 고민해야했다. 2018년 하반기, 00동의 작은도서관에서 일할 적에 뉴딜 분이 추천한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란 것이 있었다. 마침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려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했다. 사업비를 준다는데 그 사업비를 마음대로 쓸 수 없을뿐더러, 심지어 식비도 제한될뿐더러, 더 심각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가 단 1원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도 황당하여 물어보니, 관계 공무원은 딱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걸 감사히 여겨라’. 열정페이로 판단했고 곧바로 나는 발을 뺐다. 신청할 당시에 쏟은 내 노력이 아깝지만, 그 이상으로 열정페이로 내 시간을 날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다보니, 무슨 공모사업이든 열정페이가 당연시 되는 줄 알았다. 깊이 고민했고, 비록 한 푼도 받지 못할지언정 2018년도부터 느꼈던 어떤 불쾌감,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회학과 출신인지라 통계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어쩌다보니 복수전공을 하게 되어 졸업논문을 두 편이나 적고 졸업했던지라 논문을 적을 자신도 있었다. 그리고 연구공모인 만큼 잘 하고나면 대학원에 갈 때에도 경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모 사업을 준비했다.

주제 선정은 쉬웠다. ‘작은도서관의 청년 배제적 요인’. 2018년도부터 느껴왔던, 계속해서 느끼던 불쾌감은 청년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작은도서관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우수수 떠올랐고, 그와 더불어 하나의 조류가 떠올랐다. 2018년부터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샬롱 문화의 발달이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언급될 것이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샬롱 문화란 취향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느슨한 커뮤니티 위주의 모임들이 생겨나는 문화로, 기존의 동아리나 카페와 다른 점은 참여비가 있고, 공간이 제공되며, 참여할 모임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종의 플랫폼이라 보면 되는데,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 곳이 아니다. 취향관, 문래문화샬롱, 트레바리, 문토... 심지어 취향관은 45만원이나 되는 회비를 내는 곳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 말은, 많은 돈을 낼만큼 문화적 열의가 많은 청년들은 충분히 많다는 뜻이었고, 그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동 단위로까지 만들어져 있었고, 그만큼 많은 공간이 있었으며, 그런 샬롱 문화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성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았다.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작은도서관은 청년이 없고, 청년들은 공간이 없다. 그럼에도 왜 작은도서관에 청년들이 가지 않는가? 라는 것이 오랜 생각 끝에 정리한, 그런 질문이었다. 너무 오래 고민해버려서 4월 중순 무렵에나 참여하기로 결정한지라, 5월 3일까지 제출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 내가 느낀 위화감을 다른 이들도 느끼길 바라며, 그렇게 나는 ‘작은도서관의 청년 배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협회와의 첫 만남

2019년 5월 8일, 연구 공모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 역시 쉽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추가 자료를 내는 시간이 이들 밖에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조급해졌다. 사실 이 즈음 방법론에 대해서도 큰 회의가 일어났다. 앞서 연구를 진행하기 전 초안을 잡으면서 여거저거에 물어보고 또 고민해본 결과 애초 계획했던 통계적 방법론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연구 계획은 이러했다. 질문지를 작성하고, 받은 연구비로 리서치 회사에 의뢰한 후, 그걸 토대로 SPSS(통계 프로그램)을 모교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 허락 하에 돌리거나(SPSS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연구비나 사비로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었다), 정히 돌릴 곳이 없다면 Kess(서울대 통계학과에서 나온 무료 배포 통계 프로그램)를 약간만 더 배워서 통계 분석을 돌린다.

하지만 이 설계의 가장 큰 문제는 표본이 충분해야한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할 전제, '작은도서관을 알고 있는 청년' 부분조차도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통계적 방법론을 포기해야하는가를 엄청 고민했다. 어찌보면 가장 강점인 부분을 포기하고 가는 것인지라,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통계적 방법을 쓰지 못할 정도로 작은도서관과 연관된 청년이 적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어떤 청년 배제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더 확신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주어진 시간은 단 이들 뿐이었다. 결국 서둘러 추가 자료를 넣고 서둘러 제출해버렸다.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집행설명회가 열렸다. 직장에는 아예 연가를 써서 참석하기로 한지라 시간은 충분히 여유 있었다. 다만 생각 이상으로 꼬불꼬불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었기에 조금 길을 헤맨 것을 빼고는 말이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는 생각보다 커다란 건물에 있지는 않았다. 건물 자체도 상설무대 우리소리라는, 국악 연주회 공간이 메인인 것 같았다. 입구에는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 있어서 따로 전화를 드려 드디어 들어갈 수 있었다.

내 예상대로, 공모 참여자들 중 내 나이 또래는 찾을 수 없었다. 아쉽게도 가장 막내가 나왔다. 분위기 자체는 예상과 달리 매우 화기애애했다. 2018년도 청년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고압적인 태도의 공무원을 생각했던 나로서는 천만 다행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구청에서 했던 사서 교육에서 알게 된 분들도 계셔서, 새삼 작은도서관 업계가 좁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다. 심지어는 집행설명회가 끝나고나서 과일과 과자도 바리바리 싸서 들고갈 수 있었다. 특히나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입장에서, 과일은 엄청난 사치였고 덕분에 이들 만에 비닐봉투 가득 있었던 과일을 모두 기쁘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와 별개로, 연구는 난항이었다. 통계적 방법을 포기하는 게 확실해졌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란,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1:1 인터뷰와 달리 사람들의 여러 생각이나 의견들을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들 사이에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 다만 질적 연구방법은 내 특기가 아니었고, 기억나는 것도 학부 시절에 배웠던 기억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방법이 포기된 이상 차선책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이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 서론을 적으면서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서론을 마무리하려 계획하였다. 이미 연구계획서에 상당한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도 했고, 이 단계는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면 되는 단계였던지라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았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의 계기와 동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부분이었다. 가장 먼저 작은도서관의 기능의 변화, 즉 '공공 문화 서비스의 제공'으로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을 적었다. 그리고 그 공공에 청년들이 빠져있음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왜 청년들이 빠져있는지, 즉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적었다. 서론의 전문은 이러하다.

『2017년 기준, 전국에 6,058개의 작은도서관이 세워졌다. 국공립 중규모, 대규모 도서관과 달리



작은도서관은 규모도 작고, 이용객 수도 적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지방자치센터 등등을 개조해서 만든 곳도 있다. 작은도서관들은 비록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이미 동 단위와 아파트 단지 단위까지 퍼지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뒤에서 다시 살필 것이지만 도서관의 추세는 전통적인 기능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존, 열람’에서 ‘공공 문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공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핵심 과제이다.

‘공공’이란 단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재산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성별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작은도서관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 이용률 통계는 물론이고, 개별 사례조차 찾기가 힘들 정도다. 문화 프로그램들마저 대부분 오전이나 오후 4시쯤 개설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아예 작은도서관들이 문을 닫는다. 이른바 ‘문화 취약 계층’을 우선해야한다고 하여 작은도서관은 아동, 주부, 노인 계층으로만 가득 찼다. 작은도서관의 장서 비중을 보라. 대다수의 작은도서관들은 아이들 위주의 책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청년들이 도서관이나 문화에 흥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많은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들에게서 안 그래도 바쁜 청년들이 시간 내서 오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허나 편견과 달리 청년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한다. 트레마리, 취향관, 문래당, 문토 등으로 대표되는, 2015년 이후로 이어진 현대판 살롱의 추세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이런 문화와 공동체의 향유가 이미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왔다는 점이다. 단지 그 대상이 주로 아동, 주부와 노인에 치중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공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작은도서관과 청년을 엮는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하여 보다 기초적인 질문인, ‘작은도서관에 왜 청년이 오지 않는, 혹은 못하는 것인가?’에 집중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형성 과정, 청년의 정의와 청년 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문화권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질문지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제4장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마지막 제6장은 전체 요약과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하였다.』

이론적 배경도 적어야할 것이 많았다. 일단 적어도 핵심적인 다섯 가지 부분을 명확히 해야했다.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 ‘작은도서관의 역할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청년’을 어떻게 정의해야할 것인지, ‘청년’ 문화 정책의 문제점이 어떻게 지적되어왔고, 문화권이란 무엇인지. 이 다섯 가지는 ‘작은도서관’이란 곳이 ‘청년’을 ‘배제’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들이었다. 그렇기에 먼저 단어의 정의를 살피고, 그 뒤 선행 연구 논문들을 들춰야했다.

가장 먼저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2009년에 세워진 도서관법에 아예 그냥 명시되어 있으니깐. 단어의 정의를 아예 법에서 결정내린 것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거저 먹거나 다름없었다. 어떤 추상적인 부분을 살피거나, 각 학자마다의 다른 의견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확실히 작은도서관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용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짐으로써 명료화된 단어이기는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용어적으로 보자면 ‘작은’과 ‘도서관’의 합성어로, 그냥 말 그대로 큰 도서관이 아닌 작은 도서관을 뜻하니까 말이다.

『도서관법 제2장 4조 가목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그러나 달랑 이렇게만 적을 수는 없었다. 여기에서 법적인 정의가 되어있었지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3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로 ‘공중의 생활권역’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은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지식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독서문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함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은 구체적으로는 면적 33m<sup>2</sup> 이상 264m<sup>2</sup> 미만, 장서 1,000권 이상 3,000권 미만, 열람석 6석 이상 60석 미만이며, 이름대로 그 규모가 작은 도서관임을 뜻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된 단어는 반드시 그 역사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가령 헌법조차도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가령 민주주의와 같은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마

땅히 작은도서관이 왜 작은도서관이 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들어가야만 그 단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2009년이지만, 작은도서관 설립 자체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 독특하게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서관 설립 운동이 전개되어왔다. 1960년대의 마을문고운동, 1970년대 노동도서관, 1980년대 주민도서관운동 등을 통해 마을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연도별로 일어난 도서관의 성격은 각기 다르다. 1960년대의 마을문고운동은 주로 독서를 통한 지식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열악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종의 농어촌 계몽 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노동도서관은 주민이 아닌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뭉쳐서 만들었으며, 근로기준법 등을 읽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1980년대의 주민도서관운동은 민주화 혁명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책을 매개로 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 이 때에야 비로소 지금의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어린이독서문화공동체 공간이 강조되어 기적의 도서관 설립,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작은도서관의 초점이 주로 어린이에 맞춰져버리는 영향도 가져왔다. 앞서 언급된 2009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이 공식적으로 정립되었으며, 그 성격은 지역 공공 서비스에 맞춰졌다. 이후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식으로 성립되며 민간에서 일어난 도서관 설립 운동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두 가지 가치, ‘지역사회’와 ‘생활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고, 지역과 연계되며, 공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그렇게 형성과정도 적은 이후에는 이제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어야했다. 앞에 서론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며 살펴보아야 작은도서관이 지식 정보 서비스의 제공에서 공공 문화 서비스의 제공으로 역할이 변화하였고, 따라서 청년층들 또한 그러한 문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져야한다는 당위적 주장이 가능해진다.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그 역할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야한다. 1960년대의 마을문고운동은 주로 정보지식의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정보의 격차가 심하고, 지식 습득의 기회가 불균등했기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불균등이 정보화 사회로의 이양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 해소되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다시금 도전받았다. 무엇보다도 정보지식의 습득이라는 점에서 작은도서관은 규모와 장서량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 공공도서관들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199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이 공부방 중심의 경쟁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을 때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책을 읽고 문화와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려고 했다.’<sup>1)</sup>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복합공간으로’<sup>2)</sup> 거듭났으며, ‘지역주민이 소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 공간’<sup>3)</sup>이기를 요구받는다.

더하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2008년 기준 644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76,926명으로, 미국의 32,560명, 일본의 40,847명, 영국 13,340명, 독일 9,618명과 비교하면 도서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 서비스의 거점이 되어야할 공공도서관이 적기에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6,058개가 설립된 작은도서관이 변화된 도서관의 역할인 문화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갈수록 지식정보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문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행되는 추세이며, 이는 뒤의 청년 문제와 연계된다.』

다음은 청년의 정의이다.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체 그 연구대상으로서의 청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연구가 가능할 것임은 자명하다. 아쉽게도 작은도서관이란 명칭과는 달리 청년이란 단어는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웠다. 법적 정의부터가 중구난방이었으니까. 그렇기에 청년이라는 단어의 역사성을 먼저 살핀 후, 법적 정의들을 들고 오고, 그 중에서 좁은 범위를 선택했다.

『청년은 소년과 장년 사이의 연령대를 묶어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사전적으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왜 이런 모호한 정의를 지니게 되

1) 윤명희 외,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11p

2) 변현주 외, 작은도서관진흥법안 및 작은도서관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 51pp

3) 『작은도서관운영매뉴얼-부천시작은도서관(공립편)』, 국립중앙도서관, 2008, 15pp

있는지 살피기 위해 용어의 역사성을 들여다보겠다.

한국에서 청년이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880년 일본에서였다. 당시 YMCA를 번역하면서 사용한 ‘기독교청년회’가 그 시작인 것이다.<sup>4)</sup> 이후 1950년대까지 청년은 과거 시대와 맞서는 존재이자 동시에 이념 대결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는 4.19 혁명을 통해 사회 중심 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1960년대에 산업화가 진행되며 대학생 또는 산업 일꾼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민주화를 이끄는 주요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사회 중심 세력에서 내려와 신세대라는 명칭으로 호명되며 대중문화 및 소비주체로 변화했다.<sup>5)</sup> 이처럼 청년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청년을 하나의 단위로 쓰는 연구는 일단 그 청년의 정의에서부터 모호함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도 청년의 정의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금) 제5호

: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표 1-1〉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

청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령들 뿐 아니라, 청년과 유사한 성년의 정의, 이와 대비된 청소년의 정의, 2019년 기준 서울시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들도 있다.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주요 자격 및 요건

: 만 19세 ~ 만 34세

서울시 뉴딜일자리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

〈표 1-2〉 유사 법령 및 사례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볼 때 일정한 기준을 다소 모호하게나마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과 〈표 1-2〉에서 살펴보았듯 성년(만 19세) 이하의 나이는 청소년이나 학생으로 포괄되므로, 최소한 성년 이상으로 범위를 좁혔다. 34세~39세도 그 범위가 모호하기에 과감하게 범위를 좁혔다. 즉, 본 연구에서 청년이란 20세 ~ 34세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이제 서론의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문화권이란 개념에 대해서 적어야 했다. 마지막 문단이기도 하고, 문화권의 분량은 클 필요가 없었기에 두 분량을 합쳐서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화 정책의 지배적인 기조는 일자리 정책이었다. 심각한 취업난이 닥



치자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에는 「청년 내일 만들기」를 실시하였고<sup>6)</sup> 2013년에는 서울시를 선두로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이 발족되었다. 문제는 청년 정책이 일자리 해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청년 공간들도 사실상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청년을 그저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되도록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정을 꾸려야 하는 존재, ‘구조적 취업난의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sup>7)</sup>

2010년대의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트레바리, 취향관, 문래당, 문토 등의 사업 모델은 정확히 청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파고들어 성공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표준화된 삶의 강요와 내면화, 권위적 연령주의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기회와 장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sup>8)</sup> 있다.

문화권(Right to Culture)이란 개념이 있다. 이는 인권 내에 내포된 용어로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이다. 이런 문화권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2조는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24조인 “모든 인간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와 대비되어 노동권과 다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또한 1968년 개최된 ‘인권으로서 문화권’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에 이어서 ‘문화권(cultural rights)’이라는 개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sup>9)</sup> 한국에서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되었다. 문화기

6) 이규용,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노동리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5  
 7) 김경례,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8) 김경례,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권은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해볼 수 있다. 문화자유권이 주로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이고, 문화참여권이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화평등권은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권리이고, 문화환경권은 개인이 문화를 인식하고 찾아갈 수 있는 기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권리이다.<sup>10)</sup>

결론적으로, 문화평등권과 문화환경권이 있기에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단순히 민간에 맡길 영역이 아닌, 공공이 관여할 영역이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취지인 지역 문화 서비스의 공공적 제공과 같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청년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완성된 서론을 만들기까지 약 1달이 걸렸다. 많은 수의 논문들을 보았고,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논문만 추려내어 인용하였다. 이 긴 서론을 만들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두 가지 지점이 있었다.

하나는 수많은 논문들 중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한 논문의 절대수가 양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점이다. 차라리 청년 문화와 관련된 논문의 수가 더 많았다. 당연하게도, 청년과 작은도서관을 함께 엮어서 내놓은 논문은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도서관들에 비해 작은도서관은 체계화되어 통합된 지 얼마되지 않은 도서관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서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기에 작은

9) 김기근,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11(2), 광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10) 이동연 외,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방안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도서관 단독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부족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작은도서관은 예전부터 민간에서 해오던 것들인지라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결정적인 것은 뒤의 두 가지다. 네 번째로 작은도서관의 주요 이용계층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 다섯 번째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다른 하나는 청년 문화에 대한 논문들이었다. 묘하게 불편하지만 불편하다고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 창업카페든 일자리 카페든 공유공간이든 어디든 청년을 위한다는 곳에 갔을 때 느꼈던 어떤 불쾌감들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도 아예 인용하였지만, 청년을 그저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되도록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정을' 꾸려야하는 존재, '구조적 취업난의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로 그 부분이다. 어디를 가든 청년이라면 뭐라도 해라, 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껴야 했으니까. 그리고 이진 다른 관점인데, 이런 청년 공간은 또한 닫힌 사회적인 어떤 폐쇄성을 가진다. 가령 어느 청년 공유공간에 들어가본 적이 있었다. 길가다 들러서 밥 해먹어도 되고, 그냥 앉아서 책을 읽어도 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기에 아무런 부담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서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나는 약간 당혹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왔으니까 어디 자리에 앉아서 책을 꺼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친한지 이야기하면서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 어색한 부담감 속에서 나는 그저 불청객이 된 기분이 들었고, 바로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곳이 종교에 소속된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곳으로, 사실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인이고, 자기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서 또 하나, 작은도서관에 청년이 배제되는 이유도 혹시 이런 강압적이지 않을 뿐, 사실상 작용하는 어떤 배타성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야심차게 만든 서론은 한 달 만에 간신히 완성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 활동,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단계에 도달했다.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합시다! 라고 외쳐봐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갈 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알아야 했다. 사회학과 학부 시절에 배웠던 것으로 그게 '무엇' 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할 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서점으로 뛰어갔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연관된 책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그것 하나만 다른 책은 없었고, '질적 연구방법론'을 다루는 책들을 꽤 있었다. 살펴보며 느낀 것이지만 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다루는 책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사회학,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다루졌고, 하나는 교육학에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회학에서는 통계적 방법론을 더 우선시하고 중시하지, 질적 연구방법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단 서점에 진열된 책의 숫자만 봐도 통계와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권수를 차지했지만 질적 연구방법론은 책장에 1~2권 있을까 말까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결국 내가 산 책은 '질적연구의 이론과 실제(Jane Ritchie 외 3명, 정담미디어)'와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John W. Creswell, 박영스토리)'의 두 권이었다. 앞의 책은 좀 더 구체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살피기 위해서였고, 뒤의 책은 꿀팁들을 찾기위한 발췌독 용으로 사게 되었다. 이 때만 해도 비록 익숙하지 않은 방법론이지만 제대로 연구를 진행해보려는 의욕이 넘쳤고, 곧바로 여러 곳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역시 연구 공모의 주체였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였다. 집행설 명회에서 이미 어느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을 모을 때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언질을 받았던 것이었다. 이 곳이 내 첫 번째 라인이었다. 두 번째로 연락한 곳은 뉴딜매니저님이었다. 마침 내가 뉴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같은 뉴딜 동료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청의 뉴딜매니저님들과의 연락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로써는 대단히 의외라고 생각될 만큼, 뉴딜매니저님께서는 대단히 좋은 시도라 기뻐하셨고 적극적으로 호응 해주셨다.

인원 모으는 문제도 해결되었겠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해야했다. 몇몇 분들의 자

문을 받아 질문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작은도서관 이용 및 운영, 공간, 사람, 자료.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지가 만들어졌다.

『

–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 작은도서관을 아십니까?
- 작은도서관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 작은도서관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작은도서관에 오시기 전에는 작은도서관이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 작은도서관 이용/운영

- 주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 작은도서관이 아닌 유사한 다른 문화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작은도서관을 자주(혹은 가끔)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어떤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십니까?
- 작은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은도서관을 청년이 이용하러 온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용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 공간

- 작은도서관의 위치 때문에 불편함을 겪거나 오기 싫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있었으면 합니까?
- 작은도서관의 외관 때문에 오기 꺼려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꾸몄으면 합니까?
-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때문에 오지 못하거나 힘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시간대에 열었으면 합니까?

– 사람

- 작은도서관의 사서나 운영진 때문에 이용이 꺼려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

습니까?

-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작은도서관 이용을 꺼리게 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때문에 들어가기 꺼려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자료

- 작은도서관의 콘텐츠 이용이 어렵거나 꺼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작은도서관에 책들의 장르나 연령대가 너무 치우쳐져서 이용하기 어렵거나 꺼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작은도서관의 전시가 불만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자유발의) 청년이 작은도서관에 많이 오지 않는(혹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은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룹에 따라 질문지의 내용은 달라져야했고, 이것은 대략적인 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질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뿐이었고, 맨 처음은 가장 주제에 핵심적인 그룹,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것이니만큼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측에 부탁하였고, 인원 모집을 시작하게 되었다.

## 첫 번째 실패

실패한 일을 적기란 새삼 어렵다. 이번엔 적으면서 더욱 어떤 감정적 거부감을 느꼈지만 어찌되었든 실패담 또한 남겨야한다는 생각이 더 강한 덕분에 적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언제, 어디에서 몇명이 모일지 전부 순조롭게 정해졌다. 2019년 7월 29일, 마포구의 어느 작은도서관, 5 ~ 6명. 위치는 작은도서관 관장님이 허락해주셔서 쉬이 구할 수 있었다.



먼저 사전답사를 준비했다. 일단 그 공간이 그룹 포커스 인터뷰를 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야 했으니까. 너무 좁지는 않은지, 에어컨은 있는지, 찾아가기에 어렵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곳 사서 분께서도 청년이시라 본격적인 인터뷰 이전에 미리 뵈어놓고 싶기도 하였다. 미리 해당되는 질문지를 뽑아가진 채 해당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장에는 오후 반차를 아예 내버렸고, 덕분에 사전답사를 다녀올 시간을 벌었다.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직장에서 바로 마포구로 출발하였다. 선명하게 기억나는 점은, 생각보다 외진 곳이었다는 것과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다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굉장히 먼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계단을 걸어올라가 드디어 작은도서관에 들어갔다. 그곳은 어딜 개조한 것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데, 어쨌거나 어떤 독립된 건물의 윗 층에 있었다. 신발도 벗고 들어갔다. 사서로는 봉사자 분과 앞서 언급된 청년 사서분이 계셨고, 이용자는 어르신과 아이 몇 명이 있었다. 일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예정된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고 물부터 마셔야 했다. 다시 말하지만 아주 몹시 더운 여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5 ~ 6명은커녕 20명은 들어가도 될 정도의 방이었고, 에어컨은 아주 잘 틀어졌으며, 지하철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곳에 계시던 청년 사서분과의 대화도 즐거웠다. 약 2시간 동안의 인터뷰이기에 시간 개념을 체득하려 비슷하게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나는 고작해야 2년을 채 있지 않았음에도 사서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비애들을 공유했다. 가령 사서의 이미지가 책을 읽으며 우아하게 편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미지라면, 실제로는 책을 읽기는커녕 일하기 바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흔히 사서들이 이야기하기로 ‘사서는 책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 나르는 사람’ 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좋은 기억들은 순식간에 무참하게 사라졌다. 사전답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왔지만 돌아온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청년을 거의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적인 사실이었다. 협회 측에서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의 관장님의 딸이라던가, 무려 대전에 계신 활동가 선생님이라던가, 작은도서관에서 일했다가 지금은 청년 NGO에서 일하는 분이라던가, 비록 연구 대상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다. 문제는, 그렇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 뿐이다.

## 두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는 크게 적을 것도 없이 더 어이없이 바로 발생했다. 일단 협회 측에서 모으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었던 뉴딜매니저님께 부탁드렸다. 다행스럽게도 뉴딜매니저님께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보신다고 하해주셨고, 피 말리는 시간들이 지나갔다. 일단 뉴딜 순회사서로 일하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 서초구 뉴딜매니저님 소개로 다른 구의 뉴딜매니저님들께도 연락을 돌렸다. 서초구 뉴딜매니저님께서 뉴딜매니저들이 쓰는 게시판이 있다기에 그곳에도 부탁드려 공지를 올렸다. 물론 당연히 같이 일하는 뉴딜 순회사서 동료분들께도 부탁을 드려보았다.

하지만 다가온 현실은 참혹했다. 일단, 청년이 없었다. 뉴딜일자리의 대다수는 40대 ~ 50대까지 아우르는 중년층이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연구대상인 20 ~ 35세 이하에 해당되는 분을 찾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았다. 30대 초반 분들도 계시고, 아예 같이 일하시는 20대 분 두 분도 계셨다. 문제는 그 분들을 한 시간대에 한 곳에 모을 만한 모든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몇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 하나는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고, 둘은 쉬는 시간에는 나오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는, 7 ~ 8월이 한참 여름휴가 기간이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시도는 무산되었고,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청년’ 을 모으는 건 무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 세 번째 시도

초안 보고일인 2019년 8월 16일이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미룬다면, 설령 녹취를 한다고해도 그걸 타이핑하고 분석할 시간조차 없어지는, 마지노 선이었다. 결국 가장 모으기 쉬운 그룹이었던 ‘작은도서관과 무관한 청년’ 들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다. 문제는 최단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모으기에 실패했던 것이 무안하셨던지 뉴딜 매니저님께서 해결책을 내셨다.

자신과 사적으로 인연이 있던 옛날 제자들을 부르면 어떻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 급하게 모집이 시작됐다. 그 쪽에서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었고, 그 한 사람이 주변 친구들을 모아 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정 안되면 소모임 어플리케이션 같은 곳에 공개적으로 사람 모집을 올려서라도 모집할 생각까지 하고서, 모집을 부탁드렸다.

천만 다행이게도 일단 인원은 전부 모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각기 인적사항까지 받아두고서, 모집자들에게 맞추어 장소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스터디 룸이 있는 카페로 장소를 정했다. 먼저 카페에 연락을 하고, 예약까지 했다. 급하게 모은 것이 미안하여 연구참여비와 별개로 음료수까지 사주었다. 그렇다, 드디어 최초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개인 인적사항을 적었을 때부터 실감하고 있었다. 나이는 전부 25살에, 성별은 전부 남성이었다. 다양한 연령과 다른 성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날아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초안은 작성해야했고, 차라리 나중에 한 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따로 모을지언정,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진행해야했다.

진행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다들 정말 고맙게도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임해주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2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걸 다 적기엔 너무 많은 분량이 나왔다. 1시간 분량이 무려 15페이지에 달했으니깐. 그렇기에 여기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세 가지만 간추려 올린다.

먼저 공간 부분의 질문에서, 생각 이상으로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대상으로는 ‘카페’와 ‘영화관’이었는데, 둘 다 청년층 문화 활동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보여서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카페가 가지는 어떤 인테리어적 효과들, 가령 특색있고 색다르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시도들이 여기저기 있고, 루프탑이나 높은 천장들, 커다란 창문 혹은 아예 벽면 하나를 유리로 만들어버리는 개방적 특성들, 재즈 연주나 연극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 공간 등이 나왔으며, 인테리어 외에도 지하철역 근처나 번화가, 대로에 위치하거나 아예 집 근처에 위치하는 등의 위치적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족한 홍보와 운영 시간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나타났다.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운영자 부족이 운영 시간 미비의 원인

이라면 아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 시간의 운영을 맡기는 방식은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나왔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뢰감에 대한 불신과 태도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났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지라 대단히 신선했는데, 일단 관리의 전문성 부분에서 사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 의아하여 물어보니, 이유인즉슨, 어떤 책에 대해 추천을 부탁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심한 것이,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며 아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왜 왔느냐는 식으로 쳐다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심하게 대하는 사서가 있었던가 경악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웠던 서비스의 종류를 물어보니 영화관 안내원을 예시로 들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겠지만, 이는 아마도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의 차이로 보였다. 대체로 도서관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도서관을 엄숙하고, 조용하고, 책을 읽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체로, 작은도서관 봉사자들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주부들의 사랑방, 일시적인 창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역시 대체로, 청년들은 도서관을 어떠한 체험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서나 봉사자들은 사서에게 영화관 안내인을 바라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나는 문화 서비스의 제공이란 기능으로 넘어간 이상 체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란 개념이 점점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사서의 역할도 바뀌어갈 것이라 추론해본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지점은, 작은도서관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었다. 청년들은 어떤 ‘체험’ 활동들을 원했다. 이미 유럽의 사례들에서 독서에 대한 개념도 갈수록 체험의 개념에 포괄되어가고 있음에 그저 장서들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위의 단락과 연관되는 지점인데, 많은 청년들은 작은도서관에서 ‘체험’하기를 바랐다. 나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지금 일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겪어보았는데, 비록 아동에 한정되긴 했지만 3D 프린트 펜 체험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1인당 20분씩 3D 프린트 펜으로 나비나 안경을 만들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6주간 운영하면서 아동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쉽게도 ‘아동만 대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호기심을 보이는 성인의 눈빛 또한 아이들만큼이나 반짝였다. 언급되었던 체험 활동들은 ‘캘리그래피’, ‘부채 그리기’, ‘달력 만들기’ 등의 원데이 클래스들과 ‘음악 연주회’, ‘오디오북’, ‘책 소개’ 등의 문화 활동들이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언급된 것의 상당수가 이미 공공도서관

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문제는 그조차도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역지로 간추려서 적었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이나 독서 동아리를 해보고서 그 뒤로 단절되어버린 독서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들, 막상 들어간다고 아이들은 시끄럽고 어른들은 눈치주는 문제들, 카페나 만화방들처럼 쉬어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등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비록 연령층과 성별의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체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녹음한 것을 기록하는 녹취일이 남았다. 바로 이 녹음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물론 노트로 필기도 하였고, 음질도 나쁘지 않았으며, 혹시나 싶어 이름표와 초반의 각자 소개로 음성 판별의 기준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였다. 왜 그룹 인터뷰에서 녹취록 작성을 위해 녹음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하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개인 인터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이었기에 역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르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었다. 납득하든 납득하지 않든, 초본 작성 마감일이 다가왔고 할 수 없이 작업 중이던 녹취록의 앞부분을 포함시켜 제출하였다.

## 네 번째 실패

간신히 가장 모으기 쉬운 그룹이었던 ‘작은도서관과 무관한 청년’에 대한 인터뷰는 완료되었다. 문제는 나머지 그룹들이었는데, 이미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청년’ 그룹 모으기에 완전히 실패한 이후라 고민은 더 깊어졌다. 무엇보다 예상 외의 변수가 찾아왔다. 2019년 8월 16일에 초안을 제출한 이후, 9월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바로 이 9월이 도서관 계에서 악명이 높은 달이었다는 점이다. 일단 9월 12 ~ 9월 15일까지는 추석 연휴였기에 연구 진행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서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많은 도서관 행사는 작은도서관에 익숙했던 나로써는 질릴 만큼 많았고, 추석이 끝나자 갑작스럽게 서초구 전체의 거대한 행사, 서초구 서리풀 축제 중 일부를 떠맡게 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3D 프린트 펜 체험 행사를 서리풀 축제 당일에 부스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이런 어떤 풍조가 나 혼자만의 일, 즉 내가 소속된

도서관만의 일이었다면 없는 시간을 짜내어서라도 연구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사서들에게 들은 바로 9월은 모든 도서관이 바쁜 달이라는 점이였다. 대체 왜? 라는 생각에 아주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정부에서 지정한 독서의 달이자, 가을은 책 읽는 계절이란 말도 있지 않느냐고, 아! 그저 독서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이었을 때에는 마냥 좋던 계절이었건만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당연히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청년’을 모으기는 더욱 완벽하게 불가능해졌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실무진’이었다. 이 그룹을 만들게 된 것도 많은 타협의 결과였다. 원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진’이었으나,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운영자라고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운영자들은 대부분 바빠서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이였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실무진들이고, 작은도서관 실무진들은 일정 기간마다 협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문제가 되었다. 모이는 시간대는 대부분 토요일인데, 내가 속해있는 도서관은 토요일에도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일 때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여쭙봐 달라 부탁드렸다. 그 때가 아니면 일일이 연락을 따로 드려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으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들었다.

이 논의는 사실 2019년 8월에 이미 되어있었고, 8월 말에 협회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타진하고 9월 초에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이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법.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협회 모임이 9월 중순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신없이 9월 중순이 되어 드디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지도 급하게 만들어 보내며 다시금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아쉽게도, 단 2명이 모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였다.

이미 시간은 9월 말에 이르렀고, 이 시점에서 나는 더 이상의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연구, 못하겠습니다.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았는지, 협회 측에서 연락이 왔다. 9월의 마지막 날, 30일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미 앞서서 ‘작은도서관과 무관한 청년’ 그룹 외에는 모든 그룹을 모으는데 실패한 나로써는 아예 연구 포기를 결심하였다. ‘작은도서관과 무관한 청년’ 들 그룹을 수십 개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건 연구의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그저 ‘인기 조사’에 불과한 어떤 것이 될 뿐이라는 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무리 무작위 표본 조사를 한다고 해봐야 ‘작은도서관’이란 곳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청년들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지며,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비교 및 대조용으로는 쓸 수 있고,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청년 배제적 요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져버리게 된다.

이미 생각은 정해져 있었기에 오랜만에 간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건물에 들어가 앉아,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른 뒤, 말을 내뱉었다.

“작은도서관 연구를 드랍해야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었고,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미안한 부분은 어찌되었건 연구를 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책임감에서 나왔으며, 원망스러운 부분은 협회 측에서 인원을 모아준다고 했으나 결국 어느 그룹도 모아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어찌됐는가. 깊이 생각해본 끝에 결론은 누가 잘못했느냐기 보다는 그저 연구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일찍이었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협회에서조차도 찾기 힘들고, 뉴딜에서조차도 찾기 힘들다면, 작은도서관 전체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자는 물론이고 운영자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비교를 하며, 무슨 대조를 하며,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저 말을 내뱉었을 때에는 성급하게 연구에 뛰어들었다는 자책감만이 남아있었다.

애시당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작은도서관과 청년을 연결시킬 어떤 기초적인 논문을 작성하여 나중에 정말로 작은도서관과 청년을 연계시킬 때의 근거이자 기초 자료로써 남기기 위함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대학원 진학에 앞서 연구 공모에 당선되어 연구를 진행하

였다는 부분을 어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였다. 이미 연구 실패가 확정된 시점에서 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상실하였고, 따라서 연구비를 돌려주고 받을 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설득하셨다. 그 연구 실패의 원인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지만, 특히 내 생각을 변화시킨 건 바로 이 부분이었다. 남은 연구비나 시작한 일은 끝맺어야한다는 어떤 도덕률은 솔직하게 내게는 와닿지 않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제 연구도 논문도 뭣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어떤 무언가를 남겨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바꾼 뒤에는 실행이 있어야한다. 대체 뭘 남겨야한단 말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선 모두 실패해버렸고, 그다지 남길만한 것도 없었다. 그러자 이사장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다.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연구를 실패하는 과정들, 그리고 비록 연구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고 싶은 말들, 보편화시키는 통계적이지도 않고, 질적 연구방법론적이지도 않은 주관적 주장들, 후속 연구에 바라는 점 등등을 소설이나 수필처럼 적어보는 건 어떻냐고.

이제는 소설이나 수필을 적어야 하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엄청 들었다. 그것도 주제는 연구 실패에 대한 것이란다. 가장 설득력이 높은 실험은 애당초 무리였기에 포기했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에서 익히 많이 쓰는 통계를 통한 양적 방법론에 기대를 걸었지만 표본이 적어 포기했었다. 마지막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질적 방법론을 붙잡고 갔지만 결국 그룹을 모으지 못했다.

그래도 일말의 책임감과, 후속 연구를 위해서라도 남겨야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작은도서관의 청년배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 실패 이야기를 적게 되었다.

## 현실, 과제, 바람

청년 없는 작은도서관

이번 연구 실패를 통해서 가장 뼈 아프게 알았던 점은 작은도서관에서 청년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1000명의 표본을 통해 조사한 '2018년 서울시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28. 귀하는 최근 1년간 어떤 유형의 도서관을 가장 자주 이용하십니까?								
	사례수	공공도서관 (시립/구립)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대학/ 학교도서관	직장 도서관	계	
전체	352	67	23	18.5	11.6	0.6	100	
연령	20대	97	57.7	3.1	4.1	35.1	0	100
	30대	79	73.4	2.5	20.3	2.5	1.3	100
	40대	85	68.2	0	27.1	4.7	0	100
	50대	44	72.7	4.5	18.2	2.3	2.3	100
	60대 이상	47	68.1	2.1	29.8	0	0	100

다음 표가 가장 핵심적이다. 작은도서관 이용 연령을 살펴보면 20대는 고작해야 4.1%에 불과하고, 그에 비해 특히 30대와 40대의 이용률은 각각 20.3%, 27.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도 살펴보자.

문24. 귀하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계	
전체	1000	10.6	89.4	100	
연령	20대	191	9.9	90.1	100
	30대	190	14.2	85.8	100
	40대	190	15.8	84.2	100
	50대	182	8.8	91.2	100
	60대 이상	247	5.7	94.3	100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20대는 고작 9.9%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에 비해서 30대와 40대는 각각 14.2%, 15.8%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층은 확률 상 매우 적어질 것이다.

문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니 독서 동아리는 어떤지 살펴보자.

〈6〉 도서관 독서 동아리					
	사례수	경험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1.2	98.8	100	
연령	20대	191	1	99	100
	30대	190	0	100	100
	40대	190	1.6	98.4	100
	50대	182	3.3	96.7	100
	60대 이상	247	0.4	99.6	100

20대는 무려 1%만이 도서관에서의 독서 동아리 경험이 있다고 나오는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1.6%, 3.3%로 나타난다. 비록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1%마저도 공공도서관이 위주일 것이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한 독서 동아리의 경우는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후자는 청년들이 문화 향유에 흥미가 없어서 저런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른바 공부하느라 바빠서 말이다.

문25.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이용자의 평생 교육 활성화 및 지원 프 그램	문화 활동 향유 기회 제공 프 그램	독서 활동 지원 및 독 서 교육 프 로그램	지역사회 교류 및 이 해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	정보 이용 활성화 프 로그램	기타	계	
전체	1000	19.5	28.4	23.6	13.3	6.3	7.9	1	100	
연령	20대	191	19.4	29.8	20.4	12.6	8.4	8.9	0.5	100
	30대	190	17.9	30.5	26.3	11.1	5.8	6.8	1.6	100
	40대	190	20	22.6	28.9	11.6	5.8	10	1.1	100
	50대	182	22	28.6	21.4	15.9	4.9	6.6	0.5	100
	60대 이상	247	18.6	30	21.5	15	6.5	7.3	1.2	100

그렇다면 이 표를 살펴보자. 도서관을 운영할 때에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20대와 30대로, ‘문화 활동 향유 기회 제공 프로그램’에 각각 29.8%, 30.5%를 찍었다. 기묘하게도 40대는 22.6%만이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찍었다. 이는 위에서 꾸준히 보인 20대의 낮은 참여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결코 문화 향유에 청년층이 무관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다.

문28-1. [작은도서관 이용자]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느 것입니까?						
	사례수	주민센터, 구청내 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교회, 절 등 종교시설 작은도서관	민간 작은도서관	계
전체	65	70.8	18.5	6.2	4.6	100
연령	20대	4	100	0	0	100
	30대	16	56.3	31.3	6.3	100
	40대	23	73.9	21.7	0	100
	50대	8	75	25	0	100
	60대 이상	14	71.4	0	21.4	100

이 표는 1000명 중 작은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65명을 대상으로 한 표이다. 여기에서 20대의 숫자가 4명에 불과한 것도 주목해야할 부분이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 그 4명 모두 주민센터, 구청내 작은도서관을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30대와 40대와는 달리, 유독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되었던 접근성의 문제가 작용했으리란 추측은 해볼 법 하다. 그럴 경우 문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에는 왜 오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28-2. [작은도서관 이용자] 문28-1의 작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사례수	사는 곳 혹은 직장과 가까워서	자료가 풍부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독서모임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계	
연령	20대	65	80	7.7	3.1	1.5	6.2	1.5	100
	30대	4	100	0	0	0	0	0	100
	40대	16	87.5	6.3	0	0	6.3	0	100
	50대	23	91.3	0	4.3	0	0	4.3	100
	60대 이상	8	37.5	25	12.5	12.5	12.5	0	100
	14	71.4	14.3	0	0	14.3	0	100	

이어서 다음 표는 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역시나 굉장히 연령별 차이가 컸다. 20대의 경우는 4명 전부 ‘사는 곳 혹은 직장과 가깝다’는 접근성의 편리를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독서모임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50대에 나타났고,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가 50대와 60대 이상에 집중되는 부분이다. 앞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 ‘작은도서관과 무관한 그룹’에서 나타났던 말 중 하나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끈대같이 자꾸 간섭한다는 말이었다. 그 지점과 50 ~ 60대의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는 대단히 대비되는 말로, 연구해볼만한 일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 ‘2018년 서울시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현실을 알아보았다. 문화 활동을 하고자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작은도서관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고, 이는 실패한 연구의 서론에 적었던 ‘소모임, 트레바리, 문토, 취향관’ 같은 살롱 문화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민간 기업에 인원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아래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므로,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다.

가장 먼저 청년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앞서 서론을 적으면서 챗터에서도 적었지만, 청년들을 자꾸 무언가 해야할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언가 해야하는건 자기들 알아서 하고 있



는 존재들이고, 그런 공간은 이미 넘친다. 오히려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PC방이나 만화방, 카페, 심지어 모텔을 포함하여, 쉬어가는 공간이었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이어 룸공족(모텔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용어가 나타난 것은, 모텔이 기존 세대들의 인식에서 숙박이나 섹스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과 크게 다른 맥락에서다. 룸공족들은 숙박보다는 대실을 통해 개인만을 위한, 그리고 동시에 샤워시설과 에어컨, 냉장고 등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멋진 공간에서 편하게 쉬거나 공부한다는 ‘경험’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두고 청년들이 공동체의식이 없다며 개인주의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살롱 문화들의 예시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가령 ‘취향관’은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강좌나 모임을 만들고 서로 공통된 체험을 하면서 친해지는 사교의 장이다. 여기는 3달에 45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단적으로, 개인주의라면 굳이 45만원이나 하는 돈을 내고서 구태여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겠는가? 강조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도,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이상하게도’ 지역 사회에서 공공 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에 오지 않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점은 역시 외관과 인테리어, 접근성의 문제이다. 당장 2018년 00동의 작은도서관에서도 리모델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외관은 구태적이었고 인테리어는 하다가 만 느낌이었다. 거기다 접근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바로 옆에 00 예술촌이 있었음에도, 청년은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사람은 또 어떠한가? 앞 챕터에서도 살펴보았듯 애당초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의 사서 및 운영진 중 청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를 위해 ‘2017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살펴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사서냐, 자원봉사자냐, 혹은 사서 자격증이 있느냐만이 기입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사서와 운영진 중에서 청년의 비중은 한없이 낮으리라 추측은 가능할 수는 있다. 나아가 작은도서관과 청년을 연계시키는 논문이 단 한 건도 없음도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아무도 작은도서관이 청년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조차 않는다는 점이다. 반복되지만, 청년은 높은 문화 활동 욕구와 공동체 소속 욕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곳은 지역 사회마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며,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공공 문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관적으로

내가 겪었던 작은도서관은 주로 유아동과 주부들, 혹은 어르신들의 공간이었다.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걸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00동의 작은도서관에 있었을 적 어떤 어르신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작은도서관에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어르신 왈, ‘청년들 와봐야 시끄럽고 춤이나 출텐데 뭘’.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나는 생각했다. ‘왜 작은도서관에서 시끄럽거나 춤추면 안되지?’ 너무 도발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도서관은 점점 그 역할을 바꾸어가고 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넘어 어떠한 체험을 읽는다는 개념으로의 확장, 그리고 나아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서 문화’에 집착되지 않고, 그저 각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 활동소로의 전환이 바로 그러하다. 만약 작은도서관의 문화 행사가 책과 연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다. 가령 내가 다니는 한 아파트 단지 도서관은 주로 주부들을 위주로 오전에 우쿠렐레 동아리가 연습하러 온다. 우쿠렐레 연주와 책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서문을 적으면서’에서 언급된 문화권이 유독 청년에게는 박탈되어있단 말인가?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될 만큼 크나 큰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 그렇기에 나는 다시 물을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시끄럽거나 춤추면 어때요?’ 라고. 약간 더 침언하자면, 근래에 도서관 업계에서 논의되는 ‘메이커스 운동’ 또한 이러한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메이커스 운동은 3D프린터나 제단기와 같이 비싼 기계를 들여다놓고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 라고 하며 지역 공유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고, 이미 한국에도 민간에서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한 것들을 도서관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라는, 중요한 역할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리고 당장 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들어온다면 그걸 쓸 사람들의 주 연령대가 어디겠는가? 바로 청년이다.

## 청년특화 작은도서관

현실과 과제를 이야기했으니 이제 바램을 적는다. 청년특화 작은도서관의 건립이 바로 그것이다. 아주 길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청년들이 오게끔 개조하기에는 중대한 결점이 두 가지나 있다. 첫 번째는 운영시간과 운영진의 문제들로, 이는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건물의 위치와 외관으로, 이 역시 내부 인테리어는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기

존의 건물을 개조하는 것에 그치는 형편상 접근성 좋고 세련된 외관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청년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에 있어서 첫 시작은 ‘청년특화 작은도서관’의 건립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문제들을 보완하고, 동시에 기존의 청년 공간들과의 차별성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공간 혹은 폐적이어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닫힌 사회가 아닌, 정말로 그냥 지나가다 쉬었다 갈 수 있고, 누가 오든 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면 해결될 문제다. 그리고 민간 기업인 ‘취향관, 트레바리, 문토 등등’과 같이 취향이나 문화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면, 살롱 문화라는 현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후속 연구가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나은 연구자를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 비록 이 연구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많은 노력이 들겠지만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운영하는 청년층이나 이용하는 청년층을 찾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작은 표본이나 의미미한 연구를 진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 청년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된 이후라면, 보다 쉽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내게 연구할 기회를 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서초구 뉴딜매니저’님께도 감사드리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해준 6명의 젊은 참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말 어찌다보니 전공도 아닌 주제에 말을 꺼낼 수 있게 해준 여러 작은도서관들과 그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고작 연구 실패담에 불과한 이야기를 읽어준 독자분들께 가장 감사드린다.